

신안, 지역축제 현장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 실시

기저질환 있는 고위험군 예방수칙 준수 당부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라 최근 지도 병어축제 현장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주로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섭취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바닷물에 접촉했을 때 감염되는 질환이다.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상승 시 비브리오패혈증 증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5~6월부터 환자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8~9월 가장 많이 발생한다.

감염 시 급성발열·혈압저하·구토·설사·피부 병변 등의 증상을 보인다. 특히 간 질환자·알콜중독자·면역저하자·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감염 시 치사율이 50%에 달해 예방수칙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선제적으로

매주 해수 및 어패류 취급업소 수칙 관수를 검사하고 있으며, 방문·전화 등을 통해 고위험군 집중 교육 및 관리 시행 중이다.

예방수칙으로는 어패류 조리 시 흐르는 수돗물에 깨끗이 씻기, 해산물을 충분히 익혀먹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 접촉 주의, 사용한 도마 및 칼 등 조리도구 열탕 소독, 어패류 취급 시 장갑 착용 등이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감염병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주민 모두 예방수칙을 잘 지켜 건강한 여름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안군은 군민 건강 유지를 위해 지난 5월 라벤더 축제를 시작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장흥군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라 최근 지도 병어축제 현장에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 홍보 활동을 실시했다. 이에 군에서는 선제적으로 매주 해수 및 어패류 취급업소 수칙관수를 검사하고 있으며, 방문·전화 등을 통해 고위험군 집중 교육 및 관리 시행 중이다. /신안군 제공

함평군, 풍란 전시회 개최

멸종위기 지정식물 I 급인 ‘풍란(蘭)’을 만나 볼 수 있는 자리가 함평군에 마련된다.

함평군은 “2023년 풍란(蘭) 전시회”가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함평자연생태공원 풍란전시관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소중한 우리의 멸종위기 식물’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멸종위기 식물인 풍란의 보존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회에는 수려한 색상과 기품 있는 향기를 가진 ‘나도풍란’과 ‘풍란’ 등 총 4천여 점의 전시품이 전시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풍란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멸종위기 식물 보존을 위해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멸종위기 생물 보존을 위한 ‘제14회 멸종위기 야생생물(동·식물) 그림그리기 전국대회’가 오는 9월까지 함평자연생태공원 내 체험학습장에서 진행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청 산림공원과(061-320-2865)로 문의하면 된다. /이문수 기자

강진군,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개 마을 선정·총사업비 59억 원 확보

강진군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3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은 올 초부터 사업 대상지에 적합한 곳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 조사 및 내부적 평가를 통해 3개소를 선정하고 예비계획 수립에 착수해 왔다. 지난 4월 12일에는 전남도 자체 현장 평가를 거쳐 계획서를 보완해, 6월 1일 농림축산식품부 대면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마을은 강진읍 송현마을, 신전면 백용마을, 읍천면 계원마을 3개 마을로, 마을별 사업비는 약 20억 원으로 국비 40억 원을 포함해, 총 59억 원이 투입된다.

이번 선정으로 강진군은 3개 마을에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함께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지

원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슬레이트 지붕개량, 빈집 철거, 마을안길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과 휴먼케어 활동 및 주민역량 강화 지원을 통한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 보장 등 종합적인 지원을 담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공모 선정을 위한 그동안 3개 마을 추진위원회와 주민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강진읍 남포마을 (18억 원), 2019년 군동면 영포마을 (21억 원), 2020년 강진읍 장동마을, 작천면 내동마을 각 (19억 원), 2022년 강진읍 송정마을 (24억 원), 병영면 동삼인마을 (20억 원) 2023년 작천면 죽산마을 (21억 원) 등 꾸준한 사업 신청을 통해 마을환경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박종욱 기자

목포,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 적용 엔진 지원

목포시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3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는 노후건설기계를 대상으로 엔진교체 지원을 신청받겠다고 밝혔다. 신청기간은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사업대상은 2004년 이전 배출가스 규제기준을 적용한 엔진이 탑재된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 로더, 롤러)이다.

지원대수는 10대이고 엔진종류에 따른 엔진교체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저공해조치신청-건설기계)

을 통해 인터넷 신청해야 하며, 최초등록일부터 오래된 순으로 선정된다.

목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해당 공고문이 게재돼 있으며, 기타 사항은 목포시청 기후환경과(061-270-8674)에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면서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영암군, 주민·청년참여예산 학교 운영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2023년 찾아가는 주민·청년참여예산학교’를 6월 21~23일 운영한다.

이번 학교는 지방재정 운용과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청년참여예산제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

영암군은 그동안 읍·면 순회 설명회 방식으로 진행해왔던 주민참여

예산학교를 올해부터 대폭 확대했다. 특히, 청년참여예산제를 도입해 청년참여위원 공모, 청년참여예산학교 운영 등 지역 청년이 예산 수립에 참여할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다음 회계년도에 청년예산도 대폭 늘릴 계획이다.

주민·청년참여예산학교 교육은 일반 3회, 청년 2회로 총 5회 구성

됐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이해 △영암군 재정 및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현황 △주민제안사업 발굴 △우수 사례 학습 등을 내용으로 참여식 교육으로 진행된다. 이번 학교에서는 시대적 요구인 △군민 안전 예산편성 교육도 추가됐다.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영암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김기철 기자

무안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무안군(군수 김산)은 2023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2천406건에 38억 600만 원을 부과했다.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무안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이며 납부 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이다.

전국 농협과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 위택스(https://www.wetax.go.kr)와 ‘스마트위택스’ 앱,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 무안군 지방세 ARS(080-450-3838)를 이용하여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민재 기자



“무안공항과 연계한 광주 군 공항 이전”발언 무안군민 버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즉각 사과하라!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무안군 의회·전남도의원(나광국·정길수)